

## 팬번역 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지식 창출: ‘실천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강 지 혜 · 유 한 내  
(아주대 · 전남대)

###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언어·문화 간의 교차와 교류도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상이한 언어·문화 간의 연결 과정에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번역이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양상과 역할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번역자들이 산업적, 전문적 맥락에서 정보 교환과 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 번역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번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온라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희나 봉사의 의미로 비전문적 번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아마추어 번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심 영역, 취향, 가치관, 이념 등이 유사한 개인들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번역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TED 강연을 번역하는 자원봉사 공동체(<https://www.ted.com/participate/translate>), Viki 영상

\* 이 연구는 2021년도 아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물 팬번역 공동체(<https://contribute.wiki.com/>), Coursera 강의 영상 번역 자원봉사 공동체(<https://translate-coursera.org/>) 등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번역이 디지털 기술로 매개되는 미디어 환경과 만날 때 가장 새롭게 보여주는 형식이 공동체 중심의 아마추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번역학계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아마추어 번역 활동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특히 국내 번역학계의 경우, 아마추어 번역을 ‘비전문번역(non-professional translation)’, ‘팬섭(fansub)’, ‘자원봉사 번역(volunteer translation)’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공동체의 홈페이지를 조사하거나 번역 결과물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관련 언론 보도나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출간된 바 있다(이지민 2015, 2021; 김순미 2016). 이들 연구가 아마추어 번역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고, 공동체에서의 번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마추어 번역과 관련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번역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는 개인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번역 방법 및 전략을 익히고 번역 질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요구된 바를 알아가고 번역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고 내면화하는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번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공동체에서 번역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배우고, 지식 생산 및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질 레ιβ와 에띠엔 웅거가 제시한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개념(Lave and Wenger 1991; Wenger 1998)을 번역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실천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실천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일종의 집단을 뜻한다.<sup>1)</sup> 학습에 관한 논의에서 처

1) ‘실천공동체’의 원어 표현인 ‘communities of practice’는 국내 학계에서 ‘실천공동체’와 ‘실행공동체’로 번역되고 있다. 즉, ‘practice’의 대응어로 ‘실천’과 ‘실행’ 중 무엇을 쓰는가에 따라 학자별로 다른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Practice’는 ‘행위를 수행함’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행함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음 사용된 이 개념은, 이제 교육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의학, 공학, 신학, 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번역학의 경우, 2016년 6월 통번역 교육 학술지인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가 실천공동체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을 주제로 특별호를 발간했다. 2022년 1월에는 번역학 학술지인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에서 실천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특별호를 발간하여 통번역 교육 외에 번역학 내에서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개괄했다(Cadwell et al. 2022). 이외에도 실천공동체 개념을 활용한 통역과 번역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별 논문 등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해외 번역학계에서는 실천공동체에 관해 학술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국내 번역학계에서는 아직 이 개념을 적용한 번역 관련 연구가 소수의 논문(예, 송연석 2017)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고, 특히 공동체 기반 아마추어 번역을 실천공동체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통번역에 대한 지식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지식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천공동체 개념이 무엇이고, 이를 번역 연구, 특히 공동체 중심의 팬번역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논문 후반부에서는 BTS 관련 팬번역 공동체인 ‘BTS TRANS’를 중심으로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맥락 안에서 행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practice’의 번역어는 ‘실행’과 ‘실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communities of practice’ 개념이 참여와 상호작용의 자발성, 적극적인 의미 공유를 통한 정체성 형성과 협상, 참여와 문제 해결에 관한 실천 의지 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실천’을 사용하기로 했다.

## 2. ‘실천공동체’ 개념과 번역 연구

### 2.1 ‘실천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천공동체’는 1991년에 레ιβ와 웅거가 처음 소개한 뒤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연이 확장되고 초점이 달라진 개념이다.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개념을 제시한 학자 중 한 명인 웅거 본인이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Lave and Wenger 1991; Wenger 1998; Wenger and Snyder 2000; Wenger, McDermott and Snyder 2002; Wenger and Wenger-Trayner 2015).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천공동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제시되었고, 그 후 웅거의 주요 저작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레이브와 웅거는 1991년에 새로운 학습 모델인 ‘상황 학습’을 제안하면서 실천공동체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상황 학습: 합법적 주변 학습(*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Learning*)』이라는 저서에서 학습은 계획적이고 기계적인 전달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진정한(authentic) 그리고 동기부여가 있는 배움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Lave and Wenger 1991). 학습에 관한 전통적 객관주의 패러다임에서는, 학습은 교수가 전달하는 객관적 지식을 학습자가 습득하고 수용하는 것이고, 지식은 학습자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레ιβ와 웅거는 학습이 지식 전달과 습득을 넘어 상호작용과 지식의 공유 등 사회적 측면을 토대로 한다는 상황 학습 중심으로 배움을 이해했다. 즉, 학습자는 사회적 행위자이고 개인은 개개의 실천을 통해 비롯되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개인의 실천은 해당 상황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학습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 학습에서 의미하는 상황은 실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표 1> 참조).

〈표 1〉 '상황 학습'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학습 모델과 전통 학습 모델(Cox 2005: 529를 재구성)

전통 모델 (인지 이론 기반)	신모델 (구성주의, 상황주의 이론 기반)
- 교수, 습득	- 학습
- 교실	-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 교수자의 교수를 통해	- 학습자의 관찰을 통해(사회적 과정) - 학습자의 주변적 참여를 통해
- 개별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배움	-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배움(사회적 과정)
- 계획된 교과과정을 통해	- 비공식적, 과업 수행을 통해
- 학습은 기계적이고 뇌의 작용으로 인한 것 - 아이디어의 전달과 수용으로 이루어짐	- 학습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 학습은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의미함

상황 학습에 기반한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레ιβ와 웡거는 라이베리아의 양복점, 미국의 해군, 유타칸 반도의 산과, 미국의 정육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Lave and Wenger 1991: 59-87). 일례로 라이베리아의 바이족과 골라족의 양복점 도제들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의복 생산용 도구, 직물의 재단과 재봉에 관해 익히고, 의복 생산의 전체 과정과 윤곽을 파악하는 한편, 의복공들의 세계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배운다. 이 사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구조를 지니는 의복 제작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실천(practice)'으로 보며, 의복 제작을 위해 구성된 사회 집단은 '실천공동체'로 보는 것이다(이영만, 박동섭 2010). 즉, 실천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지역공동체, 회사의 부서, 학교의 반, 가족과 같은 제도적인 사회조직도 아니다. 실천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실천을 공유하는 일종의 단위이다. 의복 제작을 위한 공동체는 단순히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기보다도 의복 제작이라는 실천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것이다.

그 후 1998년에 웡거가 출간한 저서 『실천공동체: 학습, 의미, 그리고 정체성(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에서는 실천공동체가 새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지식 생산 및 재생산의 기본 단위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한다.

체대로 기능하는 실천공동체는 급진적인 새로운 통찰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맥락을 제공한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호혜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과업을 수행해 온 경험은, 공동체가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학습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경험을 공동체 역량으로 결집하는 한편, 경험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출 때 실천공동체는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훌륭한 장이 된다. (Wenger 1998: 214-215)

이처럼 웅거는 실천공동체가 지식 창출을 위한 역동적인 공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습과 정체성의 관계에 관해 상술한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포섭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후향적이기도 하고 전향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은, 단순히 기술과 정보 축적의 과정이 아니라 구성원의 존재 방식과 능력 변화의 과정이다(Wenger 1998: 215). 정체성, 공동체, 학습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은 “정체성 협상의 과정”(Wenger 1998: 149)이라는 것이다.

웅거는 모든 공동체가 실천공동체인 것은 아니며, 실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특정한 3가지 차원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Wenger 1998: 72-85). 첫째, 구성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함께 작업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호혜적 관여(mutual engagement)”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나고 구성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동의 목표(joint enterprise)”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가 의미 부여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shared repertoire)”, 즉, 이야기, 도구, 담론, 역사적 사건, 개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공동체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한다(Wenger 1998: 125-126).

- (1) 지속적인 상호 관계 (관계가 조화로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음)
- (2)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일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처리방식이 유사함
- (3) 정보의 빠른 흐름과 혁신의 전파
- (4) 소통에서의 탈형식 정도

- (5) 의제 설정과 협의에서의 탈형식 정도
- (6) 구성원의 소속 여부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 방식이 유사함
- (7) 구성원들 간 직무, 역량, 기여도에 관한 상호 인지 정도
- (8)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 정의
- (9) 자신들만의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행동과 결과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10) 자신들만의 도구, 표현 방식, 또는 기타 물건의 공유
- (11) 자신들만의 지식과 이야기, 내부 농담
- (12) 생산과 소통에서 자신들만의 노하우 공유
- (13) 멤버십을 나타내주는 전문 용어의 공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의사소통 방식, 용이하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형성할 수 있음
- (14) 세상에 대한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담론의 공유

그 후 2002년에 웅거는 리처드 맥더모트, 윌리엄 스나이더와 함께 『COP 혁명(*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을 출간하면서 실천공동체를 “동일한 관심사, 일련의 문제의식, 특정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느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의 집단”(Wenger, McDermott and Snyder 2002: 4)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실천공동체의 정의이다. 해당 저서에서는 실천공동체가 개인의 학습과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에서 지식 근로자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로 소개된다. 즉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공동체라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등의 단체가 개발하고 공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위라고 보는 것이다. 실천공동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웅거, 맥더모트, 스나이더는, 조직 혁신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조직이 실천공동체에 특정 규칙이나 규정을 강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공동체의 목표와 관심사, 구성원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02년 저서에서는 조직 관리의 유용한 도구로 실천공동체가 소개되면서 실천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도 단순하게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 (1) 영역(domain): 문제를 정의하는 지식 분야 (공동의 입장,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 (2) 공동체(community):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집단(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배경을 구성한다.)
- (3) 실천(practice):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와 행동양식(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틀, 아이디어, 도구, 정보, 행동 방식, 언어, 이야기, 문서들의 집합이다.)

이는, 실천공동체의 형태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천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과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본 요소들만 충족하면 자발적, 자생적인 소규모 집단에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조직, 단체가 실천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웡거, 맥더모트, 스나이더의 저서가 2002년에 출간된 후 실천공동체 개념을 토대로 기업 교육,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출간되었다(Hughes 2007; Henriksson 2000; Halliday and Johnsson 2010; 김인학, 고준 2011; 박창동, 이희수 2011; 장원섭, 김민영, 윤지혜 2009; 정진철 외 2011).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실천공동체의 형성 과정, 효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천공동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이 개념에 관한 비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실천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작용하는 권력(power)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Niewolny and Wilson 2009; Gee 1999; Henriksson 2000; Halliday and Johnsson 2010). 권력과 위계, 정치적 요소들은 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갈등과 긴장 관계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웡거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낙관적, 이상적으로 제시했고, 실천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sup>2)</sup>

2) 1998년 저서에서 웡거는, 권력이 갈등과 지배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식 생산 및 재생산에 기여하는 행동력, 추진력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웡거는 구성원들의 배경이 다양하고 따라서 상이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의 실천공동체에 소속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주로 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에서 주로 통합적인 조화로운 측면을 주목했다.



또 다른 비판은, 실천공동체가 사회·문화적 학습을 설명하기에 시대착오적이며 폐쇄적이라는 점이다(김다슬 2021). 1991년 저서에서 레ιβ와 웅거는 실천공동체를 장인-도제 관계와 같은 폐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공동체를 본다면, 집단 내 정체성을 강조하고 외부와 경계 지어지는 폐쇄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실천공동체(특히 온라인 실천공동체)는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을 보인다. 웅거가 제시한 실천공동체와 달리, 이들 공동체는 개방적이고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장인-도제 관계에 기반한 설명은 1991년 레ιβ와 웅거가 처음으로 실천공동체 개념을 소개할 때 예시로 사용한 것이고, 그 후로는 확장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Wenger 1998). 그리고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실천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실천공동체에 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개념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사항이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개념적 외연의 확장으로 실천공동체가 학술적으로 쓸모없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ughes 2007).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에서 해당 개념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쓸모없는 개념’이라는 비판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웅거가 1998년에 제시한 실천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번역을 논의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실천공동체 논의에서 정체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학습과 의미 형성,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가치 공유, 공동체 활동과 지식 창출 문제를 가장 학술적으로 상술한 출간물이 1998년 저서이기 때문이다. 1991년 저서에서도 실천공동체 개념을 제시하지만, 초점은 상황 학습과 공동체에서의 ‘합법적 주변 학습’이다. 2002년 저서와 그 후의 출간물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조직에서 지식 관리 및 문제 해결, 서로 다른 실천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 형성 등에 실천공동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웅거 자신도 1998년 저서가 실천공동체에 관한 가장 학술적인 논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Omidvar and Kislov 2014). 따라서 본 연구 후반부의 BTS TRANS 분석에서는 웅거가 1998년에 제시한 실천공동체 개념을 토대로 팬번역

활동을 고찰한다.

## 2.2 번역학계의 실천공동체 연구

번역학에서 실천공동체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통번역 교육이다(Cadwell et al. 2022: 2). 2016년에 출간된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의 ‘상황 학습’ 관련 특별호는 통번역 교육에서 상황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황 학습에서 학습자는 실천공동체에 속해 공동체의 주변부인 초보에서 시작해 공동체의 중심부인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방식은 추상적이고 탈맥락화된 교실 안에서의 학습과 반대로 학습자로 하여금 통번역 상황, 즉 구체적인 활동 맥락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통번역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학습을 ‘통번역 학습자를 교실 안팎에서 실제 업무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교육 방식’으로 정의하고, 실제 업무 환경이나 맥락에서 학습하는 방식을 시도했다(González-Davies and Raido 2018: 1). 번역 산업의 역동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 학습 모델로 학생, 전문가, 교육자, 고용주, 고객으로 구성된 실천공동체가 제안되기도 했으며(Berthaud and Mason 2018), 군사 분쟁 상황에서 통역사와 군인 간의 학습 현상을 다룬 연구(Tipton 2011)도 있다. 국내에서는 송연석(2017)이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를 번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2022년에 출간된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특별호에서는 통번역 교육 외에 번역학 내에서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다루는데, 특히 통번역자 네트워크에서의 지식 공유와 협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리스쿠와 디킨슨(Risku and Dickinson 2009)은 번역 공동체인 ‘프로즈닷컴(ProZ.com)’을 중심으로 전문 번역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동체에 가입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는지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프로즈닷컴의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 지식 공유, 학습,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번역자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은 번역을 하면서 모르는 용어나 어려운 문장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

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이를 통해 공통의 표준과 가치를 마련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번역자로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었다(Risku and Dickinson 2009: 66).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전문 번역자 네트워크가 아닌, 아마추어 공동체에 적용한 연구들도 최근 발표되고 있다. 유(Yu 2019)는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기반으로 중국 최대의 클라우드소싱 번역 플랫폼인 ‘이엔(Yeeyan)’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공동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엔은 2006년 블로그로 시작해 2019년 기준 60만 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번역 커뮤니티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과학, 인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번역해 중국 대중들을 위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Yu 2019: 237). 유(Yu 2019)는 이엔에서 실제로 작성된 번역문과 이 번역문을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는데, 이엔이라는 실천공동체는 여러 하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성원들은 공동 번역 과정에서 번역 프로젝트 제안, 번역, 수정, 편집, 감수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보통 초급(novice), 중급(experienced), 고급(senior) 구성원이 골고루 섞여 참여하고 있어 번역 과정에서 서로의 실수를 지적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Yu 2019: 244). 유(Yu 2019: 246)는 이러한 과정을 구성원들이 의미 협상 경험을 통해 실천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실천(practices)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Yu 2019)의 연구가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온라인 공동번역을 다룬데 비해 리(Li 2015)는 중국의 팬번역 공동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리(2015)는 ‘인터넷을 통한 민족지학 연구방법(ethnography over the internet)’인 ‘넛노그래피(netnography)’(Kozinets 2010)를 통해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팬번역 공동체 중 하나인 ‘더 라스트 판타지(The Last Fantasy, TLF)’가 중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팬번역과 자막 작업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구성원 간에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의견을 표현하는지 밝혀냈다. 분석 결과 TLF는 공동체 내부의 규칙을 통해 팬번역과 자막 작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러한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무임승

차 문제, 조정 문제, 신뢰와 통제 간의 딜레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밝혀졌다(Li 2015: 223-5). TLF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정의된 경계’, ‘자발적인 조정 방식’,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리(Li 2015: 225-226)는 TLF의 사회화 과정이 실천공동체에서의 “합법적 주변 참여”(Lave and Wenger 1991)와 유사한데, 이는 핵심 구성원 및 주변 구성원 모두가 참여의 궤적을 설정하며 “자신들이 만들어 낸 정체성의 관점에서 실천에 참여하고 의미를 부여”(Wenger 1998: 155)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팬번역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Yao 2021: 1), 흥미롭게도 팬번역 공동체를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주로 중국의 팬번역 공동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Liu and De Seta 2014; Li 2015; Kung 2016; Yao 2021).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초국가적 팬번역 공동체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팬번역 공동체의 다면적인 특성을 탐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팬번역 실천공동체인 ‘BTS TRANS’ 사례분석

#### 3.1 번역 실천공동체와 팬번역

본 연구에서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BTS TRANS에서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번역을 학습하고 번역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BTS TRANS는 2023년 8월 기준 트위터 팔로워 수가 158만에 이르는 BTS 팬번역 공동체이다(<https://www.bangtansubs.com/>). BTS TRANS는 K-POP 그룹 BTS와 관련된 노래 가사, 영상 자막, 소식 등을 외국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전 세계 팬들이 BTS 관련 콘텐츠를 언어 장벽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 이 팬번역 공동체는 간사(Secretary) 겸 코디네이터 5명, 번역자 10명, 서버(Subber)<sup>3)</sup> 10명 등 총 2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3) BTS TRANS에는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자(Translator)뿐만 아니라 타이밍(Timing: 영상에서 대사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기록해 번역한 자막을 영상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작업), 타입세팅(Typesetting: 번역된 자막을 영상에 배치하는 작업), 품질

와 일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기도 하다.

팬번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있어서 팬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순영, 정희정 2020; 이상빈 2011; 강지혜, 유한내 2021; 조성은, 조원석 2021). 팬번역은 특정 스타, 장르, 작품에 대한 애호와 충성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열광의 대상’과 관련된 텍스트를 번역하는 행위를 지칭한다(O’Hagan 2009; Pérez-González 2020). 번역학자들은 팬번역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번역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활동이 자율적·자발적이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한다(Pérez-González 2012). 또한 팬번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팬들이 해당 콘텐츠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한다(Dwyer 2012).

앞에서도 밝혔듯이, 본고의 분석은 웅거가 1998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제시한 실천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BTS TRANS를 하나의 실천공동체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는데, BTS TRANS를 실천공동체로 간주하는 근거는, 웅거가 제시한 ‘실천’과 관련한 3가지 조건, 즉 공동체가 실천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Wenger 1998: 72-85). 우선, BTS TRANS는 구성원들이 모두 BTS 팬(BTS 팬덤 공동체인 ‘아미(ARMY)’의 구성원이기도 함)으로, BTS에 관한 ‘팬심’으로 결집된 집단이며, BTS 관련 정보를 함께 번역하여 다른 팬들(아미)과 공유한다는 ‘공동의 목표(joint enterprise)’가 있다. 둘째, BTS TRANS는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번역된 콘텐츠를 올리는데, 번역 작업은 상호작용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번역 결과물을 생성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호혜적 관여(mutual engagement)’가 이루어진다. 셋째, ‘팬심’의 대상인 BTS, 그리고 팬번역 활동에 관한 태도와 접근방식이 유사하고, 공동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기억, 언어 등의 ‘공동의 자산(shared repertoire)’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

된다는 점을 근거로 BTS TRANS를 실천공동체로 간주하고,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한다.

###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BTS TRANS 구성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여 실천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했다. 초점집단면담은 실천공동체 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깊은 관심 가지고 있는 집단과의 면담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Hennink, Hutter and Bailey 2020).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20년 8월 6일(그룹 1), 7일(그룹 2), 10일(그룹 3) 등 3일에 걸쳐 총 10명의 구성원들을 줌(ZOOM)으로 인터뷰했다. 구성원들이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어 시차를 고려해 비슷한 시간 대별로 3~4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했으며, 그룹당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 소요되었다. FGI 참여자 명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FGI 참여자<sup>4)</sup>

그룹	이름	경력	국적	거주 국가	주당 평균 작업 시간	번역 교육 이수	전문 번역 활동 경력
1	A	2년	캐나다	슬로베니아	10-15	X	X
	B	1년	포르투갈	포르투갈	5-8	X	X
	C	3년	한국	스위스	1-3	X	X
2	D	1년	미국	미국	N/A	X	X
	E	5년	싱가포르	싱가포르	3-5	X	X
	F	1년	루마니아	스페인	7	X	X
	G	2년 6개월	독일	일본	5-10	X	X
3	H	4년	네덜란드	네덜란드	10-15	X	X
	I	6년	대만	대만	5-6	X	X
	J	1년	미국	미국	5-8	X	X

4) FGI가 실시된 시점은 2020년이었으며, 인터뷰 대상 중 일부는 2023년 현재 BTS TRANS에 속해있지 않는다. 구성원들에게 면담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신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논문으로 발표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했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도움을 준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인터뷰에서 연구자들이 질문한 내용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 번역작업 방식, 그리고 공동체 작업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었으며, 질문지를 사전에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배부해 답변을 미리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다.<sup>5)</sup>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녹화 후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영어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은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 논문에 인용했다.

## 4. 분석 결과

BTS TRANS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번역을 학습하고, 번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이에 관해서는 FGI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본 절에서는 ‘학습’과 ‘지식 창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4.1 번역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

BTS TRANS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두고 있는 팬번역 공동체이다. BTS 관련 텍스트 번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역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새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공동체에 가입한 새 구성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학습한다.

아래 예문에서는 구성원들이 BTS TRANS에 가입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BTS TRANS에서 번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번역 행위자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 C: 3년 전쯤 가입했는데, 그 당시 막 아미가 되고 나서 가사나 영상의 영어 자막을 보니 오역이나 수준 이하의 번역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짜증이 났어요. 조사를 좀 해보니 BTS TRANS가 가장 꼼꼼하고 정확한 번역을 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신청 후 가입 승인을 받아 팀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BTS TRANS가 가장 꼼꼼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번역자들이 이 팀에 가입하는 것 같아요.

5) 구체적인 질문은 부록을 참조.

A: 번역을 하는 그룹은 많지만, 이 팀이 가장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이 점이 정말 좋았어요. 번역자 주(translator's note)도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정말 디테일에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들어 존경스러웠고,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내놓는 번역 품질에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C와 A는 가입 동기와 관련하여 ‘BTS TRANS가 가장 꼼꼼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팀’이고, ‘이 팀이 가장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내놓는 번역 품질에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설명을 한다. 즉, BTS TRANS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제시한다. 이는 결국, 본인에 대해서도 이런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는 의미 부여를 한다. 학습의 목적과 지향점이 ‘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통해 BTS의 메시지를 다른 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정체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새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온다.

I: 우리의 번역과 자막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번역이 얼마나 꼼꼼하고 높은 수준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때도 대부분 그러한 번역 품질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운이 좋게도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들이에요. 반발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 (새 구성원이 가입할 때도 테스트를 통해) 번역 순서나 자막의 정확성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해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E: 우리의 번역 스타일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처음 가입하면 가이드를 제공받아요.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구글 문서(Google Docs)예요. 번역자가 따라야 할 가이드가 있고, 서버가 따라야 할 가이드도 있어요. 이 가이드를 통해 번역의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준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작업을 하다가 같은 코멘트가 반복적으로 달리는 경우, 이 코멘트를 가이드에 포함시켜요. 서로 논의해서 이런 번역 방법이 최선이라고 결정하는 거죠.



I의 답변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개별 구성원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BTS TRANS가 아마추어 번역자들 중심의 공동체일지라도 성향과 번역에 관한 시각이 공동체와 맞아야 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번역 역량에 있어서도 공동체 합류 후 번역을 본격적으로 학습한다 할지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동체가 기대하는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력과 번역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는 새 구성원의 번역 학습 과정에서 ‘가이드’(지침)와 ‘표준화’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새 구성원은 ‘가이드’를 통해 번역을 학습하는데, 번역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표준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이드’와 ‘표준화’가 고정적, 정태적인 것으로 제시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역동적인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이 의견 교환과 번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가이드’에 새롭게 반영되는데, 이처럼 ‘가이드’는 계속 수정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이드’는 구성원들이 번역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번역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이드’는 공동체의 정체성(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수행하는 공동체)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번역 작업 수행 방식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도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A: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번역한 텍스트는 최소 두 명이 검토를 해요. 따라서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제안하는 것에 모두가 익숙하죠. 자신이 번역한 것에 비평을 받거나 코멘트를 받는 것에 모두가 그러려니 해요. 같은 상황은 주로 팀 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되죠. [...] 대부분 번역은 구글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 코멘트를 달거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음표를 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 도와주실 분?” 등의 코멘트를 달아요. 대부분이 구글 문서 내에서 해결이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 협력해 나가죠.

A의 답변은 우선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협력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번역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지정 검토자의 피드백을 직접 받기도 하지만(‘한 사람이 번역한 텍스트는 최소 두 명이 검토를 해요’), 해결이 어려운 번역 문제를 공동체 전체에 물어보고 다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번역을 학습하기도 한다(‘대부분 번역은 구글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 코멘트를 달거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을 알아가고, 그들의 질문과 답변 내용과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공동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여러 차원에서 학습경험을 하게 된다.

#### 4.2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창출

실천공동체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을 생산한다. BTS TRANS의 주된 관심사가 BTS이자 BTS에 관한 정보의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생산하는 지식은 ‘BTS에 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BTS에 관한 지식’ 창출이라는 표면적, 의도적 지식 생산 활동을 넘어, BTS TRANS가 ‘팬번역’에 관해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실천공동체인 BTS TRANS의 구성원들이 팬번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앞의 문제를 팬번역에 관한 어떤 지식으로 구성하고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G: 이런 것을 어떻게 번역할지 꽤 긴 논의가 있었어요. 결정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더 많은 시청자를 위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한국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

6)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팬번역에 관한 지식’이 BTS TRANS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팬번역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팬번역 현상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팬번역 공동체의 관점, 팬들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록 외국어를 많이 살려두는 것보다는 자국화된 접근법(domesticated approach)을 보통 사용해요. ‘maknae’ 같은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텐데, 다른 한국어 단어는 빼버리거나, 번역자 주를 달기도 해요.

E: 아재개그 번역의 경우도 그래요. 조금 전에도 우리끼리 그 문제 때문에 한참 토론을 했었는데 생일 파티 영상에서 진이 “여기 맛살 없잖아”라고 말하니까 정국이 “우리 다 예술이잖아”라고 맞받아쳤어요. 한국어로는 정말 재미있는 말인데, 공식 자막에서는 “There is no cooking wine here” 그리고 “Don’t whine about it”으로 처리했어요. 우리 모두 그걸 보고 “번역이 달라!”라고 말했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운(rhyme)을 맞춰서 번역을 하긴 했는데, 한국어 표현의 특 쓰는 맛(lust)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예요.

A: 제가 느끼기에 특히 우리가 가사를 번역할 때는 시적 감성(poetry)을 전달하면서 메시지의 본질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는 곡 자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원곡을 부를 때 말하려는 것을 그들의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TS 노래 가사 번역은 우리 것을 보라고 다른 팬들에게도 말해요. BTS 노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G, E, A는 공동체 번역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번역 방법과 전략의 문제에 관해 구성원들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는 BTS와 한국어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번역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는 반면, E는 번역 텍스트가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번역하는 것보다는 출발어인 한국어의 뜻과 느낌, 재미와 함축의미가 모두 전달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런 이유에서 번역 방법으로 ‘번역자 주’를 자주 사용한다고 여러 구성원들이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번역 원칙만으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광고, 뮤직비디오, 보도 등)를, 그리고 여러 언어적 장치(언어유희, 풍자, 아이러니 등)를 모두 번역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소통의 목표, 장르와 사용

자의 유형, 드러내고자 하는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번역 방법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A의 경우, 가사 번역에는 가사의 의미 뿐만 아니라 가사가 지닌 ‘시적 감성(poetry)’, 그리고 원곡에 어떤 구체적인 원어 표현이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사를 팬번역할 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BTS TRANS 구성원들은 팬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는 번역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번역 지식이지만, ‘옳은 번역’과 ‘나머지는 모두 오역’이라는,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구성원들은 번역 방법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직역’, ‘의역’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번역 문제를 막연하거나 모호하게 또는 예들려 설명하는 경우가 없다. G, E, A의 설명을 비롯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FGI 답변에서도 번역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번역 문제가 등장하는 구체적인 상황, 번역 방법이 필요한 세부적인 맥락, 특정 독자 집단을 목표로 하는 번역 전략에 관한 논의가 명확하고 자세하게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은 정교하고 정확한 언어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번역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자국화된 접근법’)를 사용하기도 한다.

BTS TRANS는 아마추어 번역자들로 구성된 실천공동체지만, 상호작용과 소통, 번역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팬번역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다. 팬번역에서 대상 독자-시청자를 어떤 집단으로 설정하는지, 번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능과 효과가 무엇인지,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어떤 장르인지 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팬번역에 관한 새로운 이해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찰력과 지식은 ‘가이드’에 기재되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이 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G: (BTS의) 팬덤은 BTS의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BTS가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는 거죠. 팬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BTS가 한 말을 듣고, 분석하고, 가슴에 새겨요. 우리 팀이 번역 품질을 생각할 때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

가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특정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버전으로 몇 주 동안이나 공유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번역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번역해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번역자 주를 많이 다는 이유이기도 하죠.

E: 그런 작업은 타입세터들이 해요. 원래 광고에도 다른 색상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타입세터들이 원본의 캡션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해요. 캡션 작업이 어렵더라도 번역팀에서 최대한 의미가 통하게 번역하려고 하죠. 끝말잇기 게임하는 장면을 어떻게 번역할지 한·영 번역자들끼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번역자 주를 달기로 했어요.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 해결해요. 모든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 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F: 중요한 것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작업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원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H: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무거울 때 “나는 휴식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돼요. 한 달, 두 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번역 활동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다른 멤버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기뻐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항상 멤버들이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 예문들은 팬번역 문제를 팬덤과 팬번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G의 경우, 번역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소셜미디어 시대에 스타에 관한 정보가 팬덤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와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팬번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스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번역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번역의 질이 낮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팬덤에 피해를 주는 일, 즉 팬번역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팬번역 윤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팬번역에서 어떤 번역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정확한 번역을 위해 번역자 주를 많이 다는 이유이기도

하죠’)도 궁극적으로는 팬번역의 윤리 문제로 귀결된다는 설명이다.

E, F, H는 팬번역이 공동체의 협업, 상호이해,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E의 경우, 팬번역은 다수의 논의를 통해 최적의 번역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번역 결과물이 영상 텍스트에 자막으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타입세터들과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F는 팬번역의 경우, 공동체의 정체성에 잘 맞는 구성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취향 공동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속성을 지니지만, 팬번역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경우,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번역을 수행한다는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지닌 구성원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H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팬번역은 특정 스타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고,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즉, 팬번역은 책임이 따르는 과업이기도 하지만, 공통의 취미를 향유하는 취향 공동체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연함과 상호이해,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BTS TRANS의 번역 실천은 BTS 관련 정보의 전파라는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팬번역이 ‘팬덤’과 ‘번역’의 접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생산한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번역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시간과 능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BTS TRANS가 실천공동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균형 지점을 팬번역 실천에 관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타에 대한 애정이 정확하고 우수한 팬번역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성향을 지닌 구성원 선발에서부터 열린 소통과 상호이해, 협력으로 모든 팬번역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팬번역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고찰하고, 실천공동체를 중심으로 번역 연구를 수행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1991년에 레ιβ와 웅거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뒤, 웅거의 후속 저서들(단독 저서 및 공동 저서)에서 초점이 다른 개념으로 제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에 웅거가 제시한 실천공동체의 개념을 기반으로, 팬번역 공동체인 BTS TRANS에서 번역 학습과 지식 창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했다. BTS TRANS는 BTS에 관한 애정을 공유하면서 BTS 관련 영상 텍스트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번역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정체성은 구성원 선발에서 번역 학습과 활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환경과 조건이 된다. 이런 정체성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번역을 학습하고, 번역에 관한 정교한 이해를 토대로 팬번역 관련 지식을 창출한다.

BTS TRANS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천공동체 개념은 팬번역 공동체의 정체성이 구성원의 경험과 학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역량이 공동체 역량으로 결집될 때 공동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공동체의 정체성도 유지되는데, 동시에 구성원들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인지하면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 역량이 계발되고 능력이 신장된다. 특히 실천공동체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동체에서의 학습과 새로운 지식 창출은, 가치 공유와 상호작용에 기반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팬번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구성원들끼리의 연결성이 어떻게 ‘실천’에 관한 지식으로 구현되는지도 보여준다. BTS TRANS의 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번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책임의식이 취향 공동체의 ‘놀이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팬번역 공동체에서 창출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아울러, 아마추어 번역 공동체의 부정확한 번역 문제가 단순히 ‘나쁜 번역’, ‘질 낮은 번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의식, 공동체 의식 등의 팬번역 윤리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고, 공동체에서

는 이러한 지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팬번역 윤리에 관한 논의는 번역학 연구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문제로, 오히려 그 중요성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팬번역 실천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번역 관련 지식이다.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BTS TRANS라는 특정 팬번역 공동체의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실천공동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번역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 앞으로도 집단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이 번역의 실천, 구성원들의 번역에 관한 학습, 지식 창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향후 번역학에서 다양한 번역 환경과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실천공동체 개념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지혜, 유한내 (2021) 「‘모두 함께 만들고 즐기는 자막’: 플랫폼 기업 주도의 팬 번역에 관한 비판적 분석」, 『번역학연구』 22(1): 9-37.
- 김다슬 (2021) 『맥락의 변화 속에서 집단학습에 나타난 단계적 모순인식과 성적 학습 양상에 관한 연구 - 정론일보 편집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순미 (2016)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들의 참여 번역 현상: 그 의미와 번역계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 『번역학연구』 17(3): 7-32.
- 김순영, 정희정 (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4): 75-97.
- 김인학, 고준 (2011) 「CoP(Community of Practice)에서 동기특성, 활동특성, 인구통계특성이 지식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0(2): 133-147.
- 박창동, 이희수 (2011) 「성인학습자의 공식적 CoP 참여동기가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 분석: K은행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7(3): 83-107.
- 송연석 (2017) 「번역교육에의 전문가학습공동체(PLC) 적용가능성에 대한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1(4): 29-50.



- 이상빈 (2011)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119-143.
- 이영만, 박동섭 (2010) 「배움의 공동체의 인식론적 배경탐구」, 『초등교육연구』 23(1): 183-209.
- 이지민 (2015)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자수 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번역학연구』 16(2): 165-186.
- 이지민 (2021) 「TED 자막 번역 전략 설문 조사」, 『통역과 번역』 23(1): 185-212.
- 장원섭, 김민영, 윤지혜 (2009) 「실행공동체 공식화가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8(3): 209-228.
- 정진철, 마상진, 이윤조, 최지원, 안주리 (2011) 「실천공동체로서의 전문지도연구회 성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2): 1-32.
- 조성은, 조원석 (2021)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와 팬번역」, 『번역학연구』 22(1): 247-278.
- Berthaud, Sarah and Sarah Mason (2018) ‘Embedding Reflection throughout the Postgraduate Translation Curriculum: Using Communities of Practice to Enhance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4): 388-405.
- Cadwell, Patrick, Federico Federici and Sharon O’Brien (2022) ‘Communities of Practice and Translation: An introduction’,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7: 2-15.
- Cox, Andrew (2005) ‘What Are Communities of Practice? A Comparative Review of Four Seminal Work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1(6): 527-540.
- Dwyer, Tessa (2012) ‘Fansub Dreaming on ViKi: “Don’t Just Watch But Help When You Are Free’’, *The Translator* 18(2): 217-243.
- González-Davies, Maria and Vanessa Enríquez Raído (2018) ‘Situated Learning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Bridging Research and Good

- Practice’, in Maria González-Davies and Vanessa Enríquez Raído (eds) *Situated Learning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Bridging Research and Goo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1.
- Gee, James Paul (1999) ‘The Future of the Social Turn: Social Minds and the New Capitalism’, *Research on Language & Social Interaction* 32(1-2): 61-68.
- Halliday, John and Mary Johnsson (2010) ‘A MacIntyrian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Learning’, *Management Learning* 41(1): 37-51.
- Hennink, Monique, Inge Hutter and Ajay Bailey (2020)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 Henriksson, Kristina (2000) *When Communities of Practice Came to Town: On Culture and Contradiction in Emerging Theories of Organizational Learning*. Available at <http://www.lri.lu.se/pdf/wp/2000-3.pdf>
- Hughes, Jason (2007) ‘Lost in Translation: Communities of Practice – The Journey from Academic Model to Practitioner Tool’, in Jason Hughes, Nick Jewson and Lorna Unwin (eds) *Communities of Practice: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30-40.
- Kozinets, Robert V. (2010) *Netnography: Doing Ethnographic Research Online*, London: Sage Publications.
- Kung, Szu-Wen (2016) ‘Audienceship and Community of Practice: An Exploratory Study of Chinese Fansubbing Communities,’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3(3): 252-266.
- Lave, Jean and Etienne Wenger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P.
- Li, Dang (2015) *Amateur Tran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Participatory Culture in China: A Netnographic Study of The Last Fantasy Fansubbing Group*,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Available at [https://pure.manchester.ac.uk/ws/portalfiles/portal/54573482/FULL\\_TEXT.PDF](https://pure.manchester.ac.uk/ws/portalfiles/portal/54573482/FULL_TEXT.PDF)
- Liu, Xiao and Gabriele De Seta (2014) ‘Chinese Fansub Groups as Communities of Practice: An Ethnography of Online Language

- Learning’, in Peter Marolt and David Kurt Herold (eds) *China Online: Locating Society in Online Spa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25-140.
- Niewolny, Kim L. and Arthur L. Wilson (2009) ‘What Happened to the Promise? A Critical (Re)Orientation of Two Sociocultural Learning Traditions’, *Adult Education Quarterly* 60(1): 26-45.
- O’Hagan, Minako (2009) ‘Evolution of User-generated Translation: Fansubs, Translation Hacking and Crowdsourcing’, *The Journa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1(1): 94-121.
- Omidvar, Omid and Roman Kislov (2014) ‘The Evolution of the Communities of Practice Approach: Toward Knowledgeability in a Landscape of Practice – An Interview with Etienne Wenger-Trayner’,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23(3): 266-275.
- Pérez-González, Luis (2012) ‘Amateur Subtitling and the Pragmatics of Spectatorial Subjectivity’,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2(4): 335-352.
- Pérez-González, Luis (2020) ‘Fan Audiovisu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thi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72-177.
- Risku, Hanna and Angela Dickinson (2009) ‘Translators as Networkers: The Role of Virtual Communities’, *HERMES: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Business* (42): 49-70.
- Tipton, Rebecca (2011) ‘Relationships of Learning Between Military Personnel and Interpreters in Situations of Violent Conflict: Dual Pedagogie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5(1): 15-40.
- Wenger, Etienn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P.
- Wenger, Etienne C. and William M. Snyder (2000) ‘Communities of Practice: The Organizational Frontier’, *Harvard Business Review* 78(1): 139-146.

- Wenger, Etienne, Richard McDermott and William M. Snyder (2002)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A Guide to Managing Knowled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Wenger-Trayner, Etienne and Beverly Wenger-Trayner (2015) *Introduction to Communities of Practice: A Brief Overview of the Concept and Its Uses*. Available at <https://www.wenger-trayner.com/introduction-to-communities-of-practice/>
- Yao, Shuting (2021) ‘Love My House, Love My Bird a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erspective on Chinese Fansub Practic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50(5): 481-505.
- Yu, Chuan (2019) ‘Negotiating Identity Roles During the Process of Online Collaborative Translation: An Ethnographic Approach’, *Translation Studies* 12(2): 231-252.

## 부록

FGI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p>참여 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S TRANS의 구성원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li> <li>•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li> <li>•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li> <li>• 다른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네트워킹을 하는지? 상호작용 방식과 프로세스에 만족하는지?</li> <li>•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li> <li>• BTS 팬덤의 일원이 되는 것이 본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지?</li> <li>• BTS TRANS 활동과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지?</li> <li>• BTS TRANS 활동과 BTS의 세계적인 명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li> <li>• BTS의 소속사에서 공동체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지?</li> <li>• BTS TRANS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는 흥미롭고/재미있고, 진심 어린/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인지?</li> </ul>
<p>운영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S TRANS 내에서 전반적인 활동 기획 측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그 역할은 무엇인지?</li> <li>• 공동체 내에서 번역 시스템 관리(및 번역 품질 보장)에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한 역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li> <li>• 번역 관련 문제나 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성원 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갈등과 그 해결의 예를 들어줄 수 있는지?</li> <li>• BTS TRANS의 수입원은 무엇인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는지?</li> <li>• BTS나 BTS의 소속사로부터 지원을 받는지?</li> <li>• 번역 작업과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지원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번역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BTS TRANS의 번역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li> </ul>

[Abstract]

## **Learning and Knowledge Creation in Fan Translation Community: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mmunities of Practice'**

Ji-Hae Kang\* & Han-Nae Yu\*\*

(Ajou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communities of practic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realm of translation studies, with a specific focus on research into community-oriented amateur translation. Drawing on Wenger's 1998 conception of communities of practice, this study analyzes how learning and knowledge generation unfold within a fan translation community known as BTS TRANS by employ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pecificall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 analysis underscores that BTS TRANS embodies a distinct community identity that is dedicated to meticulously translating video content related to BTS. This identity effectively shapes and governs the entire spectrum of their activities. As this identity-driven interaction thrives within the community, members organically and flexibly acquire translation skills, culminating in the creation of translation-related knowledge. Illustra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BTS TRANS, the communities of practice framework emerges as a valuable analytical tool. It vividly illustrates how the dynamics of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facilitate learning, skill enhancement, and the organic generation of knowledge.

Keywords: communities of practice, situated learning, identity, knowledge creation, interaction, fan translation community

주제어: 실천공동체, 상황 학습, 정체성, 지식 창출, 상호작용, 팬번역 공동체

강지혜(1저자)

아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jihackang@ajou.ac.kr](mailto:jihackang@ajou.ac.kr)

관심 분야: 제도번역, 학술지식 번역, 번역과 디지털미디어, 번역학연구방법론

유한내(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영어학과 부교수

[ambrosia14@gmail.com](mailto:ambrosia14@gmail.com)

관심 분야: 번역비평, 번역철학, 번역자의 지위와 역할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